

2009 년 봄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하나님의 성전인 교회—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—의 내재적 의미

메시지 10

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림

성경: 시 23:6 하, 26:8, 27:4, 36:8-9, 43:4 하, 84:4

I. “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”—시 43:4 하.

- A.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음식으로 제시하신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보여준다—창 2:8-9.
- B.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바꾸어,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누림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—시 36:8-9.

II. “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...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...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벤엘이라 불렀으니”—창 35:3 상, 7 상.

- A. 창세기 35 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에서 단체적인 체험—하나님을 벤엘의 하나님으로 체험함—으로 전환하는 중요하고도 철저한 전환이 있다—엡 3:17-21, 4:4-6.
 - 1. 창세기 35 장 7 절에는 *엘-벤엘*, 즉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신성한 새 칭호가 있다.
 - 2. 이 장 전에는 하나님이 개인들의 하나님이셨다. 여기에서 그분은 더이상 다만 개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엘벤엘, 즉 단체적인 몸의 하나님,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다.
- B. 벤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체적인 생명을 상징한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벤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야곱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단체적인 체험으로 전진한 것이다—고전 12:12.
- C. 야곱이 벤엘에 쌓은 단은 *엘-벤엘*, 즉 단체적인 몸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다. 이것은 단체적인 제단—하나님의 집을 위한 제단이였다—창 35:6-7.
- D.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벤엘의 건축을 위해 계시되었다. 우리는 오직 벤엘에서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심을 깨달을 수 있다—11 상.
 - 1.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으로 계시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.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분이시다.
 - 2. 우리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을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체험할 수 없다.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벤엘에,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한다.
 - 3.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심은 몸을 필요로 한다.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방안을 체험하려면 건축물인 집이 필요하다—빌 1:19.

III. “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어다” (시 34:8).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—그리스도 안에서, 교회 안에서,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맞보아 안다.

- A. “나의 평생에...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”—23:6 하.
1.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—아들의 은혜, 아버지의 사랑, 그 영의 교통—을 누리는 곳인 우리의 거처이다—고후 13:14.
 2. 여호와와 집은 확대된, 우주적인,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—그분의 나타남과 만족과 안식을 위한 아버지의 집이다—요 14:2, 20.
- B. 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”(시 26:8).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처소, 그분의 영광이 거하고 머무르고 나타나는 곳인 성전을 사랑해야 한다—84:1, 29:9 하.
- C. “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”—27:4.
1.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스런 거처를 가지신 사랑스런 분이시다. 그분 자신이 누림직한 분이시고, 그분의 거처 또한 누림직하다.
 2. ‘아름다움’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랑스러움, 유쾌함, 매우 기쁨을 함축한다.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때 우리는 매우 유쾌한 분위기에 있다—출 24:9-11, 대하 3:18.
- D. “저희가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”—시 36:8-9.
1.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서 살진 것, 넘침, 풍성, 충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—8 상.
 2.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락의 강을 마실 수 있고,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체험하며,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본다—8 하-9 절.
 3.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와 생명의 원천과 생명의 빛을 누린다.
 - a.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만족게 하는 살진 것,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는 생명의 강, 우리를 먹이는 생명나무,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위치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.
 - b.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적셔지고,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,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을 함께 나누고, 하나님의 신성한 빛 가운데서 빛을 볼 것이다. 이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의 궁극적인 누림이 될 것이다—계 22:1-2, 5.
- E. “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”—시 84:4.
1. “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”—145:2 하.
 2. “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”—146:2.
 3. “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”—22:3.
 4. “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...을 드립시다.”—히 13:15.